(3) 인문사회계열

■ 출제의도

[문제 1]

- 문제1을 출제한 의도는, 각 제시문에 내포되어 있는 포괄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서로 관계 지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봄.
-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야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임. 특히 라)의 경우 생략된 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워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요구됨.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자 함.

[문제 2]

-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 다른 전통과 가치관을 지닌 지문을 비교 평가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임.
- 충돌되는 가치관들을 대조하고, 철학, 사상의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을 경제적 영역과 연관 짓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 창의력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제 의도임.

[문제 3]

- 인간의 행복을 경제적, 비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경우 비경제적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따라서 학생들의 도표에 대한 분석력, 도표간 상호비교,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력을 파악하는 것이 출제 의도임.

■ 채점기준

[문제 1] (30점 만점)

1) 제시문 가)는 미카엘 엔데의 장편동화『모모』의 일부임. 여기서는 현대인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여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착가하지만 사실은 더 유가 없어진다는 점이 나타남. 제시문 나)는 피에르 쌍소의『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의 일부임. 오늘날에는 휴가조차도 지나치게 짜인 시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대인은 휴가 때조차 여유는커녕 서둘러 치러야 하는 일이 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제시문 다)는 다비드 르 브르통의『느리게 걷는 즐거움』의 일부임. 이 글은 지나치게 빠르게 사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느리게 사는 삶을 제시함. 제시문 라)는 고은의 시「그 꽃」임.(원래 이 시의 제목은 없지만, 통상「그 꽃」이라고 부름.) 어딘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리로 올라갈 때는 바쁜 일에 쫓겨 꽃을 보지 못했으나 일을 다 치르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거기서 천천히 내려올 때는 꽃이 눈에 들어온 상황을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위의 글들과 상통하는 바가 큼.

2) 위 글 전체의 논지를 제시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가), 나), 다), 라)의 요지를 각각 제시하고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논지를 제시할 수 있음. 아니면 먼저 글 전체에 드러나는 논지를 제시하고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논거로 삼아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음. 어떻게 제시하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겨 있어야함. 현대인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함. 물론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면 됨. 그러니까 '느림'이든 '빠름'이든 시간의 문제가 논지의 중심에 있어야 함.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문명에 대한 문제라든가 현대인의 삶에 대한 문제로 논지를 제시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답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음(약 10점)

3) 이글 전체에 대해 제시한 논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은, 그 논지를 옹호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수용하면서 제3의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논리가 탄탄해야 한다는 것임. 논거로는 현대인의 삶 전반에서 우리나라의 상황, 개인의 삶이나 취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끌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함.(약 15점)

4) 어휘력, 문장과 전체 구성도 점수에 포함함.(약 5점)

[문제 2] (30점 만점):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비교 (15점):
  - 두 지문을 하나의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내용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문을 대조,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함)
  -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분석 대조하여야함.
    (그 외의 관점에서 두 지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

  Key Word : 제시문 가) (최대다수의)최대행복,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 벤담의 공리주의, 계량화를 통한 측정, 양적 공리주의. 제시문 나) 통합적, 범신론적 세계관, 삶의 평정을 얻는 참다운 만족 성취, 정염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능동성을 극대화, 이성적 삶 향유, 참된 인식과 이성적 관조

- 공리주의를 자본주의의 성장과 한계와 연관 짓는 부분 (15점):
  - 최대행복의 원리가 경제자유주의를 지탱하는 사상적 버팀목이 되었음을 파악하는 내용.
  - 최대행복의 원리가 경제적으로 극대화 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 특히 가난한 사람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점, 공동체 가치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 등 한계점 지적
  - 주장의 내용이나 건전성이 아니라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의 논리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것.
  - 예시답안의 후반부 참조

Key Word : 최대행복의 원리가 경제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사상적 버팀목 개인의 권리, 특히 빈자의 권리 무시, 공동체 가치 파괴

[문제 3] (40점 만점):

1) <도표 1>, <도표 2>의 분석 (20점) :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 세 번째 문단 참조
     -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본 특징 도출 : 평균과의 비교, 특징치(최대치, 최소치)와의 비교
     - 구체적인 수치 인용도 중요함
   - 고려사항
     - 우리나라가 아닌, 즉 세계적 관점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별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 경우도 논리적인 답변이면 인정

2) <도표 2>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20점)

- 예시 답안의 네 번째 - 여덟 번째 문단 참조
- 생활만족도와 관련있는 사회적 연대, 공해, 일과 삶의 균형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세 가지 이상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만점
- 분석 결과 혹은 문제점을 단순히 반복(예, 단순히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하면 점수를 주지 말 것

■ 모범답안

[문제 1]

위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현대인의 삶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글이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현대인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해 무관심해 지고, 여가조차도 빨리빨리 해치우며, 자연에 눈을 돌릴 마음의 여유도 없다. 심지어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니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시간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산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수익성, 효율성, 목적지향 등의 현대 사회의 특성이 깔려 있다. 이러한 특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제시문 가)에서와 같이 우리의 생활은 더 바빠지고 여유는 더 없어지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행복지수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유난히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쪽에 있는 외국 사람들조차 대한민국 하면 '빨리빨리' 라는 말을 떠올린다. 그것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고, 빨리빨리 문화가 그 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빨리빨리 문화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할 정도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의 대형사고나 최근 문제를 드러내고 4대강 사업도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의 부정적 결과이다.

최근 한때 현대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패스트푸드를 대신해 슬로우푸드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는 슬로우 라이프로 확대되고 느림의 미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빠른' 사회에 대한 번성적 성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요는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문제 2]

- 제시문 가)는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삶의 목적은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이다. 벤담은 분석적 실증주의, 계량화를 통한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 행복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최대행복의 원리)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 법칙을 탐구하는 실증적 방법에 토대를 두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시문 나)는 인간과 신과 사물(자연, 우주)가 영원한 필연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합적, 범신론적 세계관을 구축한다. 삶의 목적은 삶의 평정을 얻는 참다운 만족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해결책으로 정염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능동성을 극대화하여 이성적 삶을 향유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소수의 명증적 원리에서 논리적 귀결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참된 인식과 이성적 관조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였다.
- 최대행복의 원리가 경제에 적용될 경우 시장 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신 문화적 토대로 작용한다. 최대행복의 원리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 활동과 교환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벤담식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계점은 개인의 권리, 특히 빈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극단적이고 무자비한 이윤추구를 정당화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경제적 빈곤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자본주의의 구축에도 위협적이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정량적 태도는 건전한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과 같은 점들은 벤담식 공리주의의 맹점이자 건강한 자본주의 건설에 역기능을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 3]

<도표 1>과 <도표 2>는 인간의 행복(만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1>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15위/187개국)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도표2>는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인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26위/34개국)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1>에서는 기대수명, 평균수학기간, 개인소득 등 3개 지표와 인간개발지수를 나태내고 있다. 기대수명은 전세계 평균(70.8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81.5세로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과 차이가 거의 없다. 평균수학기간 역시 11.8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개인 소득은 전체 평균의 2.5배 정도로 높긴 하나, 앞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의 세 지표를 결합한 인간개발지수는 전세계 상위권인 15위로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도표 2>에서는 사회적 연대, 환경, 일과 삶의 균형, 생활 만족도 지표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연대는 OECD평균(89)에 비해, 또 멕시코(74), 터키(79)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환경 중 공해는 평균(20)을 50% 이상 초과하고 있고, 칠레(46)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보다 높다. 수질의 경우, OECD 평균(84) 보다 약간 낮은, 중간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OECD 국가 중 낮 은 환경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5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8.82)보다 높고, 터키(43.29), 멕시코(28.77)를 제외한 OECD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1일 사용하는 여가시간은 14.63으로 전체 평균 14.97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는 여가시간은 별 차이가 없으나,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0ECD 34개 국가 중 26위, 즉 하위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 환경, 일과 삶의 균형 관점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여야 한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각종 모임, 지역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공해 밑 수질 개선을 위해 개별 국민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든지, 각종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다한다. 정부도 공해유발 및 수질 오염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등으로 질을 관리해 나가는 역할도 필요하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 및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의식에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만족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홍보, 교육, 사례발굴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